

일본 원폭문학의 대표작

이부세 마사지(井伏鱒二)의 『검은 비(黒い雨)』 고찰*

이 정 희**

(e-mail : leejh@uu.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왜, 지금 ‘원폭문학’인가 | 3.2 『검은 비(黒い雨)』에 나타난 피폭상황 |
| 2. 일본 전후문학 속의 ‘원폭문학’의 의의 | 3.3 『검은 비(黒い雨)』에 나타난 세 개의 시간 축 |
| 3. 이부세 마사지(井伏鱒二)의 『검은 비(黒い雨)』 고찰 | 4. 독서토론으로 본 『검은 비(黒い雨)』 |
| 3.1 『검은 비(黒い雨)』의 가치 | 5. 맺음말 |

キーワード: 原爆文学, 原爆体験, 井伏鱒二, 黒い雨, 広島

1. 들어가기-왜, 지금 ‘원폭문학’인가

올해 2017년도 노벨평화상은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¹⁾’ 단체가 수상을 하게 되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파기 등 각종 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비정부기구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 단

* 이 논문은 2016년도 위덕대학교 교비 학술진흥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된 논문임.

** 위덕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1) ‘핵무기폐기국제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은 2007년에 설립됐고 현재는 101국가에 468개의 협력기관을 두고 있다.

체가 120여개 나라의 서명을 얻어 지난 7월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금지를 목표로 하는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이 채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유였다²⁾.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개발, 실험, 생산, 제조, 비축, 위협 등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제 인류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세계평화에 새로운 방향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³⁾.

필자가 ‘원폭문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6년 5월에 출판된 작가 한수산의 장편소설 『군함도1, 2』를 읽고 나서 부터였다. 『군함도』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강제징용과 나가사키(長崎) 원폭 피해의 비극을 그린 장편소설이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県)에 소속되어 있는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軍艦島)’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한국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된 곳이다.

작가 한수산은 1988년 일본에 체류했을 때, 한 서점에서 『원폭과 조선인(原爆と朝鮮人)』이라는 책을 접한 뒤에 군함도에 있던 탄광의 조선인 강제징용과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소재로 작품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⁴⁾. 이러한 작품으로서의 첫 시도는 1993년 1월부터 중앙일보에 「해는 뜨고 해는 지고」라는 제목으로 3년간 연재한 장편소설이었다. 그 후 작가 한수산은 수차례에 걸친 군함도 방문 취재를 통해 2003년 5권 분량의 대하소설 『까마귀』를 발표하였다. 작년에 출판된 『군함도』는 『까마귀』를 다시 쓰다시피 해서 2권 분량으로 압축한 것이라고 한다⁵⁾. 게다가 2017년 7월 26일에 한수산의 『군함도』를 모티브로 한 영화 ‘군함도’가 개봉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영화 ‘군함도’에

2)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은 193개 유엔회원국 가운데 122개국이 서명했지만, 핵보유국으로 알려진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은 서명하지 않았다.

3) 2017년 10월 6일 이데일리 기사

4) 한수산(2016) 『군함도1, 2』 창비, 작가의 말, pp472-473

5) 상동

는 나가사키 원폭피해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원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広島)에 투하되고, 3일 뒤에는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나가사키의 피해 역시 히로시마와 거의 같은 규모라고 한다. 당시 일본에 있었던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은 피폭의 가공할 만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며 살아야했다. 게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대두된 피폭 2세, 3세 발병도 원인도 모른 채 고스란히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러한 한국인의 피폭 문제는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다.

‘원폭문학’은 1945년 일본 패전 이후에 일본에서 새롭게 나타난 장르다. ‘원폭문학’은 말 그대로 원폭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비참한 피해 상황을 소재로 한 문학을 말한다. 원폭 피해자들의 원폭체험이 문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소설, 시, 만화, 영화 등으로 표현되어 나오면서 반핵운동으로 퍼져 그 폭이 넓어져 갔다. 문학이 세상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학이 갖는 힘인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원폭피해에 대한 공포는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또한 2011년 동일본 후쿠시마(福島)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일본 내에서 피폭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면서 전세계가 ‘원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높아졌다. 우리는 흔히 원폭 문제 하면 원자폭탄이나 원자력잠수함 등 핵무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기 쉽다. 그러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하에 세계 도처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또한 핵문제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원폭의 재료인 플루토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위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아직도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이나 폐기물 처리 등이 절대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인류는 핵시대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폭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은 이부세 마스지(井伏鱒二, 1898~1993)의 소설 『검은 비(黒い雨)』(1966)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이 지니는 의미는 『검은 비』를 출판한 해를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 ‘가해자’로서의 일본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는 ‘피해자’로서의 일본이 그려졌다는 것이다⁶⁾. 즉, 전쟁의 가해자에서 원폭의 피해자로 이미지 체인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일본이 전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인 연구자들이 원폭문제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연구자들이 ‘원폭문학’을 연구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느냐가 주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소위 ‘원폭문학’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하나 작품론에 의거해서 고찰해 나가는 것이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아울러 이런 작업이 전체 원폭 피해자의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조선인 피폭자들에 대한 관심과 일본 내에서의 조선인 피해자의 진상조사가 체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도록 기대해 보는 바이다. 다양한 국적의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원폭문제가 다루어지고 다양한 견해가 오고갈 때, 원폭은 더 이상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는 공동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반전 평화주의라고 하는 견지에서 볼 때, 나아가 핵무기폐기국제운동 단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가운데 ‘원폭문학’ 연구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세상을 바꾸었다고 할 수 있는 ‘원폭문학’의 탄생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살펴보고, 아울러 ‘원폭’ 공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일본 ‘원폭문학’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이부세 마스지의 작품 『검은 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검은 비』를 대상으로 독서토론을 실시하였는데, 그에 관한 감상문 보고와 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⁷⁾.

6) 中野和典(2014) 「『黒い雨』はどのように読まれてきたか」 『原爆文学研究』13, p164.

7) 본 독서클럽은 우리대학 도서관 주최로 실시하는 <위덕독서클럽>으로 매학기 회원을

2. 일본 전후문학 속의 ‘원폭문학’의 의의

일본 히로시마(広島)에 있는 ‘원폭돔’을 비롯하여 ‘평화기념공원’,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하면 원폭의 참혹함을 절감할 것이다⁸⁾.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외친 ‘1억총옥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끝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일이라며 체념하듯이 일본 군부가 행한 전쟁 정책에 대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 상륙한 한 미국 병사의 눈에 비친 일본인들의 모습에서 굴욕이나 증오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세상 만들기에 희망이 넘쳐있었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전쟁만큼 세상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제도를 바꾸고 사람들의 의식에 깊은 영향을 입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국가를 비롯하여 개인에게 미치는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예기치 못한 사회 병리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흔히 일본문학의 흐름에 있어서 외국문학과 다른 점을 이야기 할 때 문학의 암흑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중국문학이 문화대혁명으로 문학의 암흑기를 맞이했다고는 하나 일본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도 문학은 의연하게 언제나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통해 한편으로는 전통을 이어가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일본도 전쟁기에 검열이 있었고, 문학의 암흑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작가들은 일본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창작활동을 해나갔고, 또 한편으로는 사소설이 발달하면서 일본문학의 독창적인 특징을 만들어 냈다.

모집해서 한 한기 단위로 운영을 한다. 지난 1학기에는 3월 20일(월)부터 시작해서 6월 5일(월)까지 총 12회를 실시하였다. 한 클럽 당 7~8명으로 학생으로 구성되어 독서토론을 진행한다. 필자가 지도교수를 담당한 독서클럽에서는 하라 다미키의 『여름 꽃』과 이부세 마사지의 『검은 비』를 읽었다.

8) 2016년 7월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해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방문하였다.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일본문학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전후문학’이라는 장르가 탄생한 것이다. 문학사에서 볼 때 1945년 이후는 소위 메이지(明治)시대부터 발전해온 ‘근대문학’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시기다. ‘전후문학’이 탄생함에 따라 ‘근대문학’의 패러다임이 약화되고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바이다.

아무튼 일본의 ‘전후문학’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전후문학’이라는 개념이 살아있음이 분명하다. 먼저 이 ‘전후문학’이 지니는 의미를 말 그대로 ‘전후의 문학’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 시기의 문학 흐름은 전전(戰前) 또는 전쟁 중에 활동한 기성작가들과 전후에 활동하기 시작한 신진 작가들이 전후의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재개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즉, 일본문학의 흐름 중 1945년 이후의 문학은 ‘전후파’라고 하는 새로운 신진 작가들이 전쟁체험을 원체험으로 해서 작품 활동을 한 반면, 기성 작가들이 소위 일본문학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한 것이다.

이 중 전후문학 속에 일본에서 최초로 원폭체험을 그린 원폭문학이 나타나게 되었다. 원폭문학은 현재 일본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맥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일본에서 전후 60년을 기념이라도 하듯이 히로시마 원폭투하를 소재로 한 만화가 출판되어 눈길을 모았다. 히로시마 출신 만화가 고노 후미요(こうの史代, 1968~)의 『저녁뜸의 거리(夕風の街 桜の国)』가 철저한 자료수집과 2년이라는 정리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출판되자마자 일본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번역 출판되었다⁹⁾. 원폭 이후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전쟁이 가져다 준 비극적인 운명을 통해 원폭 피해자들의 비극을 생생하게 그린 것이다.

9) 고노 후미요 글/그림, 홍성민 옮김(2001) 『저녁뜸의 거리』 문학세계사

원자폭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문학인 원폭문학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피폭 직후의 히로시마에서 발표한 하라 다미키(原民喜, 1905~1951)의 『여름 꽃(夏の花)』(1947)과 오타 요코(太田洋子, 1906~1963)의 『시체의 거리(屍の街)』(1948) 등은 원폭체험을 한 작가에 의한 처절한 기록을 그대로 보여준 작품이다. 게다가 하라 다미키는 원폭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이를 비판하며 자살을 하고 말았다.

원폭 후유증을 묘사하여 주목을 끈 작품으로는 아가와 히로유키(阿川弘之, 1920~2015)의 『마의 유산(魔の遺産)』(1954), 오타 요코의 『반인간(半人間)』(1954)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54년 태평양 중서부의 섬 비키니 환초에 있는 미국 핵실험지에서 수소폭탄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능 재(灰)사건 이래 원자력의 위험이 한층 표출되어 작가뿐만이 아니라 시인, 평론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 『죽음의 재 시집(死の灰 詩集)』(1954)을 간행하였다. 이 성과는 문학의 영역을 넘어서 원자력 문제와의 대결에까지 진전되었다.

문학이 미치는 힘은 시대를 뛰어넘어 발휘된다. 일본 전후문학에 있어서 원폭문학이 지니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원폭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는 점이다. 필자가 본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부세 마사지의 『검은 비』는 원폭문학을 논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작품이다. 『검은 비』를 포함한 원폭문학은 어쩌면 한국인이 다루기에는 힘든 분야일 수도 있지만, 한국인만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개입된다면 원폭문학 연구의 의의는 배가 될 것이다.

이렇듯 ‘원폭문학’의 연구를 통해 반전, 반핵 의식 고취는 물론이거니와, 교육의 현장에서 문학교육 텍스트로서도 매우 가치가 있다고 보는 바이다.

3. 이부세 마사지의 『검은 비』 고찰

3.1 『검은 비』의 가치

『검은 비』는 처음에는 『조카의 결혼』이란 제목으로 잡지 『신초(新潮)』에 1965년 1월호부터 7월호까지 연재하다가, 8월호부터 『검은 비』로 제목을 바꾸어 1966년 9월호까지 연재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66년 10월에 단행본 『검은 비』가 간행되었다. 『검은 비』는 단행본으로 나오자마자 큰 주목을 받았고, 그해 12월에 제19회 ‘노마문예상(野間文芸賞)’을 수상했다.

게다가 3년 뒤인 1969년에는 영국인 번역가 존 베스트(John Bester, 1927~)에 의해 『Black Rain(黒い雨)』라는 제목으로 영어번역본이 출간되어 영어권 독자층에게 일본의 원폭문학을 알리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해 미국에서는 전미도서관협회의 연간우수도서로 선정되었으며, 1970년에는 프랑스어와 중국어로 번역 소개되어 알려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28개국 언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한국에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9년 광주출판사에서 김정수역으로 『검은 비』가 처음 번역 소개되었고, 1999년 소화출판사에서 김춘일역으로 『검은 비』가 출판되었다.

일본에서는 소설 『검은 비』를 원작으로 해서 1983년 니혼(日本)TV에서 드라마로 제작하여 반영하였고, 1989년에는 이마무라 쇼헤이(今村昌平, 1926~2006)감독이 영화 『검은 비』를 만들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화제가 되자 『검은 비』에 모태작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세간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검은 비』는 시즈마 시게마쓰(閑間重松)의 조카 야스코(矢須子)의 혼담 이야기가 잉어 양식 이야기와 함께 1950년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화자인 시즈마 시게마쓰가 자신이 1945년 원폭 피해 당시의 상황을 적은 일기를 정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작품 속의 시즈마 시게마쓰의 일기가 실존인물인 시게마쓰 시즈마(重松静馬)의 피폭일기였던 것이다. 작품 속 화자 주인공의 성과 이름인 시즈

마 사게마쓰는 실존인물인 시게마쓰 시즈마의 성과 이름을 바꾸어서 작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실존인물인 시게마쓰 시즈마(1903~1980)는 전시 중 히로시마시의 야스후루 이치초(安古市町)에 있는 일본섬유회사 후루이치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회사원으로 1945년 8월 6일 피폭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는 도중에 피폭을 당했다고 한다. 시게마쓰는 자신이 경험한 피폭 사실을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하겠다는 의무감으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둔 것이다. 그 기록물을 1955년까지 정서해서 400자 원고지 300매 분량의 수기형식으로 남겼다가, 그것을 작가 이부세 마사지에게 보여주어 『검은 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의 실제 일기 기록은 그의 사후, 2001년 단행본 『시게마쓰 일기』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이부세 마사지의 『검은 비』가 작가의 직접적인 체험도 아니고 도작이라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검은 비』는 『검은 비』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바이다. 특히 에토 준(江藤淳)은 ‘『검은 비』는 원폭을 다룬 세계에서 얻은 최초의 문학작품이다. 원폭에 대해서 쓴 것은 무수히 많지만, 나에게서는 그 어느 것도 문학작품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 대부분이 ‘원폭’이라는 개념, 또는 ‘비참함’을 정리하려는 데 의존해서 이 최초의 체험을 제대로 볼 눈을 갖지 못했다.’¹⁰⁾고 높게 평했다.

먼저 일본에서의 연구를 성향을 살펴보면, 첫째, 작품 집필의 경위나 동기, 1945년 당시 발표된 작품과 비교하는 논문, 둘째,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논문, 셋째, 영웅이나 순교자가 아닌 서민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전쟁을 비판하고 있다는 논문, 넷째, 극한 상황에서 처한 인간의 비도덕성,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다룬 논문 등으로 대별된다¹¹⁾.

10) 「文芸時評」 「朝日新聞」 1966년 8월 25일

11) 일본에서의 『검은 비』에 관한 논문이 다수여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논문의 성격을 크게 나누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연구논문이 많지 않은데,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戰犯)적 요소가 원폭을 계기로 피해자표상으로 변용되어 가는 과정”¹²⁾을 명확히 밝히거나, 원폭 가해국에 대한 분노나 저항이 아닌 “피해의 참상을 알림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원자폭탄 피해국임을 각인시키고 일본인에게 집단적 피해의식을 갖게 하는 직접적 원인”¹³⁾이 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두 연구자의 관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검은 비』의 출현은 일본인들에게 원폭이라고 하는 공통 의식을 갖도록 강요하여 기억을 재생산하는 행위로서 그 기능을 다했다고 보고 있다¹⁴⁾.

3.2 『검은 비』에 나타난 피폭상황

본 논문에서는 『시게마쓰 일기』와의 관련보다는 완성 작품인 이부세 마사지 『검은 비』의 작품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검은 비』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검은 비』의 스토리 전개는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지 4년 10개월이 지난 후, 그들이 사는 히로시마현(広島県) 고바다케촌(小島村)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서 시작된다. 화자인 시즈마 시게마쓰는 수 년 동안 조카 야스코가 피폭자라는 소문이 나도는 것에 마음 상하고 있었다. 또한 시게마쓰와 그의 부인 시게코가 야스코의 원폭병을 숨기고 있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야스코의 혼담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그 소문 때문에 깨지고 만다. 시게마쓰는 조카 야스코를 전시 중에 보호해 주기 위해 히로시마로 데려와 같은 집에 기거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주선해 주었다.

분명히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시게마쓰와 시게코, 그리

12) 최명숙(2010) 「1960년대 원폭표상 연구-『검은 비』 『시게마쓰 일기』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8집, 중앙대학교일본연구소.

13) 정향재(2011) 「일본 현대문학에 있어서의 패전-원폭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44,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문학연구소.

14) 신현태(2005) 「井伏鱒二 『黒い雨』」 『일어일문학연구』 55집, 한국일어일문학회

고 야스코는 히로시마에 있었다. 시게마쓰는 요코가와역에서 피폭을 당해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고, 시게코는 시내 자택에 있었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야스코는 피폭지에서 멀리 떨어진 후루에초(古江町)에 있었기 때문에 원폭의 직접적인 피해는 면했다. 시게마쓰는 원폭병이라고 진단받았고, 야스코는 피폭자 정기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혼기가 찬 조카 야스코에게 좋은 자리에서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 입에서 야스코가 히로시마 시내에서 근로봉사 하던 중에 피폭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아 번번이 깨지고 만다. 그래서 시게마쓰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원폭투하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둔 일기와 아내 시게코가 작성한 일기를 바탕으로 야스코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

시게마쓰가 일기를 정서해 가는 동안에 피폭 당시의 처참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시게마쓰는 야스코에게 피폭 증세가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기를 정성껏 정서해 나간다. 그러나 작품 『검은 비』 후반부에 가면, 야스코가 원폭투하 당시 히로시마에서 손에 ‘검은 비’를 맞고 상처를 입은 것이 원인이 되어 원폭병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야스코의 증세는 시게마쓰 피폭 증세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 거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이 드러나고 만다. 그래도 시게마쓰는 “만일 지금 저편 산에 무지개가 뜨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얀 무지개가 아니라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뜨면 야스코의 병은 낫는다.”라고 하면서 점을 저보는 장면에서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이렇듯 『검은 비』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작품 속에는 시게마쓰의 일기뿐만이 아니라, 야스코의 일기, 시게코가 쓴 「히로시마에서의 전시하의 식생활」에 관한 기록, 군의관인 이와타케 히로시(岩竹博)의 일기인 「히로시마 피폭 군의관 예비원 이와타케 히로시의 수기」, 이와타케 부인의 일기, 시게코가 쓴 「다카마루 야스코의 병상일기」 등의 다양한 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5년에 발행한 시바타 시게데루(柴田重輝)의

저서 『원폭의 실상(原爆の実相)』의 일부분도 수록되어 있다.

폭격을 당하기 이전 히로시마에서의 식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시내 사정과 사람들의 동정을 대략 적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제령 하에서 주식품도 생선도 야채류도 배급제였습니다. 배급의 통보, 또는 그 밖의 전달사항은 동네 게시판이나 각 조직의 회람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석구석까지 알려지도록 짜여져 있었으며, 특히 회람판은 각종 지시를 전달하는 동맥이며 모세관 같은 구실을 했습니다.¹⁵⁾

전시하에 일본 시민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으며, 또한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배급날이면 정해진 시각 전부터 배급소 앞에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기다렸으며, 시내의 대부분의 상점들은 물품 부족으로 휴업상태였다.

반면, 통제의 눈을 속여 중개인이나 소매상이 암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경멸해서 ‘야미꾼(암거래꾼, 闇屋)’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 말은 저주받아야 할 이 전쟁이 낳은 사생아로 궁핍한 생활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악연”¹⁶⁾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작가의 전쟁에 대한 원망, 전쟁이 초래한 상처 등을 그리려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히로시마에서의 전시하의 식생활」 부분에서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 1896~1933)의 시(詩)에 빗대어 이야기 한 부분이 있다. 어린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미야자와 겐지의 대표 시(詩)인 「비에도 지지 않고(雨にもまけず)」에 나오는 “하루 현미 네 홉과……”에 맞추어 하루 배급 현미를 세 홉으로 줄여 미야자와 겐지의 청렴한 삶을 연상케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곡학아세(曲學阿世)의 무리나 할 수 있는 짓으로, 이것을 알게 되면 아마 아이들은

15) 井伏鱒二 『黒い雨』(『昭和文学全集 10』1996, p.164) 번역은 인용자가 했으며, 이후에 나오는 인용문도 마찬가지이다.

16) 井伏鱒二 『黒い雨』(『昭和文学全集 10』pp.164-165)

학교에서 배우는 일본 역사도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¹⁷⁾. 이 부분 역시 작가 이부세의 역사의식이 잘 나타나 있는 대목으로 작가의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면을 알 수가 있다.

작가의 전쟁과 원폭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비판 의식은 다음 문장에서 찾아볼 있다.

다리 옆 부근에 사람이 위를 보고 누운 채로 넘어져 양 손을 벌리고 있었다. 얼굴이 검게 변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불을 불룩거리며 크게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눈꺼풀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짐을 난간에 얹어놓고 조심조심 그 시체에 다가가 보니, 입과 코에서 구더기가 주르르 굴러 떨어지고 있다. 눈에도 잔뜩 붙어있다. 구더기가 움직이며 돌아다니기 때문에 눈꺼풀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나는 어느 시인의 시구가 떠올랐다. 소년시절에 잡지인가 어딘가에서 보았던 시라고 생각한다.

—오, 구더기여, 나의 친구여……

또 이런 한 구절이 떠올랐다.

—하늘이여 갈라져라. 땅은 불타라. 사람들은 죽어라 죽어라. 이 무슨 감격이냐. 이 무슨 장관이냐……

분통이 터지는 말이다. 구더기가 우리의 친구라니. 마치 인간파리나 할 소리를 하고 있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정도가 있지.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실제로 하늘이 갈라지고 땅은 불타고 사람들이 죽었다.

“용서할 수 없다. 무엇이 장관이냐, 무엇이 우리의 친구냐.”

나는 분명히 말했다. 짐을 강 속으로 내던져 버릴까도 생각했다. 전쟁은 싫다. 전쟁에서 지든 어쩔든 상관없다. 빨리 끝나기만 하면 좋다. 소위 정의로운 전쟁보다도 정의롭지 않은 쪽의 평화가 좋다.¹⁸⁾

17) 井伏鱒二 『黒い雨』 (『昭和文学全集 10』 p.165)

18) 井伏鱒二 『黒い雨』 (『昭和文学全集 10』 pp.208-209)

조금 인용문이 길어졌지만, 이 구절이야말로 전쟁과 피폭에 대한 증오와 더불어 작가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오로지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빨리 끝나기만 하면 좋겠다는 것이 잘 전달된다.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전쟁보다도 정의롭지 않은 쪽의 평화가 좋다’는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인용문 중에 나오는 ‘어느 시인’이란 연구자들도 지적했듯이 시인 보들레르이며, 그의 시집 『악의 꽃』에 실려 있는 시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명숙씨는 ‘시체에 다가가 보니, 입과 코에서 구더기가 주르르 굴러 떨어지고 있다’와 보들레르의 시 「시체」에 ‘거기서 검은 구더기 떼 기어 나와 걸쭉한 액체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를 유사하다고 보았다¹⁹⁾. 보들레르의 시를 살펴보면 구더기들이 기어 다니는 형상을 그린 대목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구더기’와 ‘친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보들레르의 시(詩)의 「시체」보다는, 「기쁜 시체」라는 시(詩)가 훨씬 비슷하다고 하겠다. 「기쁜 시체」를 보면, ‘오, 구더기들아! 눈도 귀도 없는 어둠의 친구들이여’²⁰⁾가 나오는데, ‘구더기’를 ‘친구’로 부르는 구절이 인용문의 상황에 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피폭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곳은 너무나도 많다. 이것이 원폭 소설이 지니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즉, 비현실적인 생활에서나 가능한 일이 원폭으로 인해 현실생활이 될 수 있다는 강한 경고인 것이다.

3.3 『검은 비』에 나타난 세 개의 시간 축

작품 『검은 비』에는 세 개의 시간 축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 작품 속의 ‘현재’라는 시점으로 1950년 6월부터 시작되는 시간이다²¹⁾. 1950년 6월이라고

19) 앞의 논문, 최명숙(2010) p.130

20) 보들레르, 공진호 역 『악의 꽃』(2015) 아티초크출판, p.152

21) 작품 내에서 패전으로부터 ‘4년 10개월 째’라고 했기 때문에 1950년 6월부터이다

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바로 6.25 한국전쟁을 떠올릴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한국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이라는 소문에 원폭투하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해인 1951년 3월에 자살을 한 작가가 있었다. 바로 일본 원폭문학의 효시라 불리는 『여름 꽃(夏の花)』를 발표한 작가 하라 다미키(原民喜, 1905~1951)이다²²⁾. 하라 다미키의 죽음은 당시 일본 문단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작가 이부세 마사지 역시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작가 이부세 마사지도 1945년 패전 이후, 1950년 6월 동아시아에서 처음 발발한 한국전쟁이 강한 임팩트로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의 기억을 다시 더듬는데 한국전쟁의 발발 시기가 적기였을지도 모른다.

한편, 작품 속에서는 6월의 의미를 24절기 중의 하나인 망종(芒種)에 두고 있다. 그해 망종은 양력 6월 6일로, 이때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씨를 뿌리는 시기인 것이다. 작품 속 화자인 시게마쓰는 조카 야스코의 혼담이 번번이 깨지는 바람에 야스코가 원폭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일기와 야스코의 일기를 다시 정서해 나간다. 농사 시작인 씨를 뿌리는 행위나, 야스코를 위해 1945년 8월 피폭 당시 일기를 새롭게 정서해 나가는 행위나 어딘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망종 다음날은 ‘벌레 공양(供養)’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 속의 벌레들을 밟아 죽이게 되므로, 쌀떡을 만들어서 죽은 벌레들을 위한 행사를 치른다. 이것 역시 시게마쓰가 피폭체험 일기를 정서해 나가면서 당시 무참히 세상을 떠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명목을 비는 마음과 닮아 있다고 보는 바이다.

또 하나의 시간은 이 작품의 ‘과거’의 시간으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일에서부터 8월 15일까지의 시간이다. 이때의 상황은 주로 시게마쓰 일기와 야스코 일기에 의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22) 하라 다미키는 피폭 작가로 자신의 원폭체험을 소설 『여름 꽃』에 담았다. 줄고 「일본원폭문학의 효시 『여름 꽃』」(『국제언어문학』 37호, 2017.8) 참조.

당시로서는 원폭이 무엇인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체험한 대로 기록을 해둔 일기를, 원폭이 다 밝혀진 상태에서 다시 원폭 체험 일기를 정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원폭피해를 제대로 알리고, 원폭의 파괴력을 자각시키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시간 축은 이 작품이 발행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본 작품의 시간 축을 두 개의 시간 축으로만 고찰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세 개의 시간축이 존재한다고 보는 바이다. 즉, 본 작품이 발표된 시점도 의미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본 작품은 앞서도 기술했듯이, 1965년 1월호 잡지 『신초』에 「조카의 결혼」이란 제목으로 연재하다가, 8월호부터 『검은 비』로 제목을 바꾸어 1966년 9월호까지 연재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66년 10월에 단행본 『검은 비』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이라는 시간 축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바이다²³⁾.

어느 시기에 썼든 원폭문학은 1945년 8월 6일 원폭투하를 기점으로 시작하여 집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검은 비』는 1960년 중반에 1945년 8월 피폭 상황을 생생하게 회상하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작품 속 회상 시점은 1950년 6월인 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시간 차를 의식해서 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른 시간 축을 두고 작품 속에서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고 있으며, 원폭투하 당시의 아비규환의 비일상적인 세계가 나타나 있는 반면, 그로부터 약 5년 정도가 경과된 표면적으로는 일상성이 회복된 세계이지만, 그 이면에는

23) 이 부분에 대해 최명숙씨는 논문 「1960년대 원폭표상 연구」에서 1960년대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도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일본인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기였고, 중반에 발발한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반전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검은 비』 발표는 피폭희생자를 사회적 약자인 여성, 어린이, 민간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원폭표상이 더 한층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상으로 변하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원폭병이라는 비일상적인 세계가 내재된 세계가 공존해 있는 것이다.

4. 독서토론으로 본 『검은 비』

지난 학기에 실시한 독서토론에서 본 논문을 위해 일본 원폭문학 작품을 읽었다²⁴. 독서토론에서 원폭소설을 택한 의도는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은 1945년 8월 일본의 원폭투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폭투하로 인해 발생한 원폭소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원폭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해 보고 싶어서였다.

독서토론 대상작품은 이부세 마사지의 『검은 비』와 하라 다미키의 『여름 꽃』으로 정했다.²⁵ 먼저 단편소설이면서 시기적으로 일찍 발표한 『여름 꽃』을 읽고, 『검은 비』는 그 다음으로 읽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둘 다 원폭소설이라는 점에서 각자 자신들의 입장이 비슷했지만, 작품에 대한 감상은 달랐다.

본 논문에서는 『검은 비』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상문 전문을 신는 이유는 학생들이 보는 원폭소설 감상이 원폭문학을 연구하는 필자에게 연구의 한 방향을 제시해 준 점도 있고,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감상문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시각이 매우 교훈적이었다는 점에서 감상문 전문을 신는 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상문은 학생들의 원문을 그대로 한 것이지만, 어색한 표현이나 문말 표현, 오자 등은 다소 수정을 했음을 밝힌다.

24)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본 독서클럽은 도서관 주최로 실시하며, 지난 1학기에 하라 다미키의 『여름 꽃』과 이부세 마사지의 『검은 비』를 읽었다(주 7참조).

25) 하라 다미키의 『여름 꽃』에 관한 독서토론은 줄고 「일본 원폭문학의 효시 하라 다미키(原民喜)의 『여름 꽃(夏の花)』 고찰」(『국제언어문학』 37호, 2017.8)을 참조하길 바란다.

① 감상문 1

일본 원폭 관련 소설은 처음 읽었다. 원폭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몰랐다. 『검은 비』를 읽고 느낀 것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었다. 원폭투하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날아가 떨어져 새까맣게 타서 죽고, 화상을 입고 결국 원폭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갔고, 집뿐만이 아니라 건물들이 무너지고, 화재로 죽고, 기왓장에 깔려죽고……이런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원폭병에 걸려 평생 고생을 하거나 원폭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동안 원폭 투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일본’이라는 국가가 먼저 떠오르고 피해를 당한 일반 시민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검은 비』를 읽고 나서는 대부분 원폭피해 사망자들이 일반 시민이라는 사실에 원폭 투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소설 속에 피폭자가 “우리들은 비전투원(非戦闘員)이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일본 정부와 군부와는 달리 일반 시민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을 것이다. 그런데 원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력의 피해자는 일본 정치인도, 군부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었던 것이다.

② 감상문 2

『검은 비』의 작가가 직접 원폭 투하를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설을 썼다는 것이 감동이었다. 그것도 ‘일기’라고 하는 가장 일상적인 장치를 가지고 소설로 구성한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스토리 전개에서 일기를 다시 정서하는 이유가 조카의 결혼 성사를 위한 것이라는 설정이 매우 인간적이었다. 그렇지만, 여성이 원폭병에 걸려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인 면이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여성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로 봐야 할지 어렵기만 했다.

작품 속 일기는 화자인 시즈마 시게마쓰가 쓴 것뿐만이 아니라 야스코의 일기, 시즈마 시게코의 일기(야스코의 병상일기)와 ‘히로시마에서의 전시하의 식생활’에 관한 보고서 등 많은 사람들이 남긴 기록 등도 소설을 구성하는 하나의 자료로 사용한 것도 『검은 비』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 소년의 이야기이다. 원폭 투하 당시 집이 무너져 빠져 나올 수 없었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불이 나서 위협에 처해 있었을 때,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려다 포기하고 도망을 가버린 장면이다. 소년은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지만, 아버지는 한 번 뒤돌아보는 그냥 사라졌다. 소년은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 큰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다. 소년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다시 큰집을 뛰쳐나왔다는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았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식을 나몰라 라고 한 아버지와, 살아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 그 상처로 집을 뛰쳐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원폭에 관한 이야기를 소설이라는 작품으로 접하면서 원폭의 위력과 함께 다시는 우리가 사는 앞으로의 세계에 절대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③감상문 3

역사시간에 일본의 원폭 투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원폭 투하로 인해 태평양 전쟁은 더 많은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최소화시켰다라고 했다. 나도 그 당시에는 원폭 투하는 일본을 항복시키는 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다. 그래서 일본의 원폭 투하는 자업자득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검은 비』를 읽고 나서는 비로소 여러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입장 등이다. 게다가, 처음으로 원폭 피해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피해 국가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원폭 투하 당시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스란히 원폭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원폭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형성되어 원폭 피해를 소설로 그린 작품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이런 사건을 유명한 작가들이 작품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검은 비』에는 작가의 반전, 반핵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작가의 반전 사상이 격렬하게 남아 있는 장면이 있다. 죽어간 시체에서 구더기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면서, “전쟁은 싫다. 전쟁에서 지든 어쨌든 상관없다. 빨리 끝나기만 하면 좋다. 소위 정의로운 전쟁보다도 정의롭지 않은 쪽의 평화가 좋다.”라고 절규하는 부분이다. ‘정의로운 전쟁보다 정의롭지 않은 평화가 좋다’라는 표현이 작품 『검은 비』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한다.

④ 감상문 4

『검은 비』가 전쟁, 원폭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로 쓰여진 소설이어서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읽혀져서 스스로도 놀랐다. 게다가 전쟁과 원폭을 다루면서도, 반면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농경생활, 그리고 일본문화를 가볍게 담고 있어서 역시 일본 소설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주제를 끝까지 무겁게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무겁지 않게 다루고, 절망을 절망으로 끝까지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면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준다. 그래서 결코 절망적이지 않게 된다.

이 작품도 맨 마지막에 야스코의 병세를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로 점치는 장면이 나온다. 건너편 산에 무지개가 뜨면 야스코의 병도 낫는다는 논리다. 야스코의 원폭병과 무지개가 뜨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비』를 읽는 독자들은 맨 마지막에 스스로 무지개가 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오른다.

『검은 비』 작품에서 특이한 묘사가 있어서 조사해 보았다. 바로 ‘무쿠리고쿠리(蒙古高句麗)’라는 말이다. 소설 속에서 원폭 투하로 버섯 모양의 구름이 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무쿠리고쿠리 구름’이라고 했다. ‘무쿠리고쿠리’의 한자를 보면 ‘몽고고구려(蒙古高句麗)’이다.

조사해 본 결과 여기에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다. 무쿠리고쿠리(蒙古高句麗)의 뜻은 무서운 것을 이룰 때 쓴다고 한다. 이는 일본이 13세기에 여몽연합군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 나온 말로, “몽고, 고구려의 귀신이 온다” 라고 하면서 벌벌 떨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떼쓰고 울면, “무쿠리고쿠리 귀신이 온다” 라고 겁을 주면 울음을 그쳤다고 한다.

『검은 비』를 통해 원폭 이외에도 일본적인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

⑤ 감상문 5

『검은 비』는 평범한 한 여성이 원폭병에 걸려 인생이 뒤틀어지는 것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다. 그러니까 원폭병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으로 그린 것이다. 피폭이라는 비일상성을 이 작품에서는 일상성으로 전환시켜 놓았다. 작가는 이렇게 비일상성을 일상성으로 전환시키기에 좋은 장르가 바로 소설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피폭자들은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인생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결혼할 나이가 된 야스코는 원폭병에 걸렸다는 소문에 혼담이 번번이 파탄 나고 만다. 아름다웠던 육체는 머리가 빠지고 종기가 나서 아물지 않는다. 이러한 증세에 좋다는 알로에를 먹는 등 민간요법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실행해 보지만 효과는 없었다. 더군다나 원폭병은 2세, 3세까지 전해져 내려가는 아주 고약한 병이다.

독서토론을 통해 처음으로 일본 원폭 소설을 읽어서 원폭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다. 어찌면 『검은 비』는 문학 텍스트로서 문학교육의 아주 좋은 자료일 지도 모른다.

일본의 원폭 투하는 지금으로부터 70년도 지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원폭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가 아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아예 없애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반면, 더 안전을 확보해서 원자력발전소를 발전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핵 보유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핵 미보유국에 있어서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만다.

원폭문학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읽고 연구하여 다시는 이 지구상에 원폭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상과 같이 5편의 독서토론 감상문을 보면 일본의 원폭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작품을 읽고 느낀 점, 인상적인 부분, 비판과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서 기술했다고 보여진다.

‘감상문1’은 피폭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원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돋보이고, ‘감상문2’는 작품의 구성인 ‘일기’에 초점을 두고 ‘일기’가 갖고 있는 편안한 속성이 작품을 읽기 쉽게 만들었다고 보았으며, 작품 속에 인상적인 부분을 소개하였다. ‘감상문3’은 작가의 반전, 반핵 사상을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피폭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감상문4’는 야스코의 원폭병 발병이 주는 의미를 부각시켰으며,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인상적인 일본어 표현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마지막 ‘감상문5’는 피폭자의 삶과 앞으로의 원폭에 대한 우리의 자세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검은 비』 독서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본 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17년도를 사는 대학생들도 국적을 떠나서 원폭투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원폭피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검은 비』라는 원폭문학이 문학 교재로서 훌륭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²⁶⁾.

26) 일본에서는 1976년에 이부세 마사지 『검은 비』가 고등교육교과서에 채택되어 실렸다.

5. 맺음말

혹자는 문학은 인간이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준다고 했다. 혹자는 문학이 있어서 인류의 멸망을 늦추고 있다고 했다. 문학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용기를, 사랑을, 인간다운 삶을 가르쳐준다고 말하고 싶다.

필자가 문학에 빠지고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문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 속에서 일본문학에 나타난 ‘원폭문학’의 대표작 이부세 마사지의 『검은 비』를 고찰해 보았다.

『검은 비』는 작품의 구조에서부터 작품 속 시간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치밀한 구도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일기’라고 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재료에서 원폭체험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요소를 부각시켜 리얼리티를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래서 『검은 비』는 원폭문학 중에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로 인해 1976년에는 고등교육교과서에 채택되어 교육의 현장에서 원폭문학의 대표 작품으로 읽히고 있다.

본 논문 작성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작업은 학생들과의 독서토론에서 『검은 비』를 읽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솔직한 감상이 논문 작성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원폭문학 연구에 하나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필자로서는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원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

때마침 2017년도 노벨평화상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단체가 수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는 현재 전세계가 당면한 핵위협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큰 전환점이 될과 동시에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는데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원폭문학’을 연구하면서 핵무기야말로 가장 파괴적이고 대량살상무기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원폭투하와 같은 참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다. 점점 핵무기가 현대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은 힘든 일일지도 모르지만,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인류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고노 후미요급/그림, 홍성민옮김(2005) 『저녁땀의 거리』 문학세계사
김정미, 김현석, 김형숙, 오석윤옮김(1996) 『일본대표단편선 1』 고려원(하라 다미키의 『여름
꽃』 수록)
보들레르, 공진호역(2015) 『악의 꽃』 아티초크출판
신현태(2005) 「井伏鱒二『黒い雨』」 『일어일문학연구』 55집, 한국일어일문학회
엔도 후히토 외, 이경희역(2015) 『일본 표상의 지정학』 한양대학교출판부
이부세 마사지저, 김정수역(1989) 『검은 비』 광주
이부세 마사지저, 김춘일역(1999) 『검은 비』 소화
정향재(2011) 「일본 현대문학에 있어서의 패전-원폭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44,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문학연구소
최명숙(2010) 「1960년대 원폭표상 연구-『검은 비』 『시게마쓰일기』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8집, 중앙대학교일본연구소.
한수산(2016) 『군함도 1, 2』 창비
江藤淳(1966) 「文芸時評」(「朝日新聞」 8月 25日)
黒古一夫(2005) 『原爆は文学にどう描かれてきたのか』 八朔社
中野和典(2014) 「『黒い雨』はどのように読まれてきたか?」 『原爆文学研究』 13
『昭和文学全集10 井伏鱒二 外』(1996), 小学館(井伏鱒二著, 『黒い雨』 수록)
『日本の原爆文学』全集 1 ~ 13卷(1983) ほるぷ出版
『原爆文学研究』 1号 ~ 14号(2002 ~ 2015), 原爆文学研究会編集
John Whittier Treat(2010) 『Writing GROUND ZERO 日本文学と原爆』 法政大学出版社

논문 투고 일자 : 2017. 10. 10.

논문 심사 일자 : 2017.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17. 10. 27.

<要旨>

日本原爆文学としての井伏鱒二の『黒い雨』考察

李貞熙

1945年 8月 日本の広島、長崎に原爆が投下され、日本は第2次世界大戦で無条件降伏を決定した。人類の最初の原爆投下によって人類の想像を越える被害をもたらした。数多くの人々が原爆病で死に去った。以降、作家たちは自分の経験と他人の原爆体験をもとに文学作品に原爆被害を語った。これが日本の原爆文学の誕生でもあった。日本で最初に発生した原爆文学の考察のために、原爆文学の代表作である井伏鱒二の『黒い雨』(1966)を分析してみた。この作品には作家の反戦、反核の思想がよく現れている。まず、『黒い雨』という作品が持っている意義をはじめ、小説『黒い雨』の構造的な特徴を調べてみた。

また、本研究のために学生たちに『黒い雨』を読んでもらい、読書討論を行った。学生たちの読書感想文を紹介し、学生たちが原爆文学をどのように受け取っていたかを紹介した。

A Study of Japan's Representative "Atomic Literature" *Black Rain* by Ibuse Masuji

Lee, Jeong-Hee

In August 1945, the atomic bomb dropped in Hiroshima and Nagasaki, resulting in Japan's unconditional surrender World War II. Mankind's first atomic bomb caused untold casualties and countless people died of even after the blasts due to acute radiation exposure. Later, authors began making presentations by using the materials and materials that they experienced in their experiences and artifacts they uncovered in the rubble. These efforts led to the creation of "Atomic Bomb Literature" or simply "Atomic Literature." In order to review this literature in Japan, we analyzed "*Black Rain*" written by Ibuse Masuji, a representative of Atomic Literature.

First of all, we looked at the structural features of "*Black Rain*", including the significance of "*Black Rain*". And for the sake of collecting data for this study, I read and analyzed "*Black Rain*" in addition to holding discussions on the novel, collecting students' impressions of the literature, and introducing their writing of appreciation in the abstract.